20150614-1053_2012528 -90216 15. 6. 12. 10:41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 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15년 6월 14일(주일) 제1053호

마리아행전 열흘 앞으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위한 여성기도부흥운동
6월 23~25일 서빙고 본당 … 오늘까지 참가신청

2015 마리아행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중보하는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벌써 2,200명의 여성들이 기도의 제단을 쌓을 준비를 마쳤다.

2015 마리아행전 '하나님의 소원'은 분열을 화합으로, 염려와 걱정을 평안으로 바꾸는 여성들의, 여성들에 의한, 여성들을 위한 중보기도 잔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신청은 오늘(14일)까지만 받는다. 오늘까지 회비를 납부하면 2만 원, 이후에 납부하면 4만 원이다. 마리아행전에 참가하는 여성들은 흰색 상의와 짙은 색 하의를 입어야 한다.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마리아행전 본부 측은 성도들에게 "행사 기간 동안 교회 주차장 이용이 어렵다"면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 기간 동안 이촌역 4번 출구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까지 오는 셔틀이 오전 8:10~10:20, 오후 15:30~16:10까지 운행된다. 탁아방은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2015 마리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재훈 담임목사,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이덕주 교수(감리교 신학대학), 이정아 사모(물푸레나무 청소년센터), 천종호 판사(부산 가정법원), 하광민 목사(생명나래교회)가 메시지를 전한다. 문의: 02-3215-3355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카운트다운 참가자 모집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참가자를 모집한다. 온라인(www.countdown.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회비는 6월 16일까지 3만 5천원, 당일 접수는 4만 원이다.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은 6월 26일과 27일 양재 온누리교회, 28일은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카운트다운 중보기도회가 17일 저녁 7시30분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열린다. 안내와 식당봉사를 섬겨줄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입금계좌: 하나은행 573-910009-29805
(예금주: 온누리교회선교대회)

문의: 02-3215-3761

'건강한 교회 세미나' 열린다

6월 29~30일 … 목회자 부부, 교회 리더 대상

온누리교회와 지앤앰 글로벌 문화재단이 '건강한 교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 29~30일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목회자와 사모, 교회 리더가 대상이다. 회비는 5만 원. 내일(15일)까지 등록하면 1만 원을 할인해준다. 교재와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건강한 교회 세미나에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저자 피터 스카지로와 제리 스카지로 부부가 강의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무엇보다 건강한 영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와 목회자로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피터, 제리 스카지로 부부는 1984년 뉴욕 퀸스에 뉴라이프 펠로우십 교회를 설립했다. 55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다. 문의: 02-3215-3532, 570-7447

온누리교회의 메르스 예방 및 대처 지침

1. 체육대회, 야유회 등 야외모임 당분간 취소
2. 메르스 발병 의심지역 순모임은 당분간 취소
3. 6월 성찬식은 쉽니다.
4. 악수 등 신체 접촉 자제
5. 손소독제 사용
6. 발열, 기침 등 감기증상 있는 성도는 CGNTV로 예배
7. 예배 중에도 마스크 착용 가능
8. 예배 전후 창문 열어 예배 공간 환기
9. 차세대 예배에서 안전교육 실시
10. 차세대 예배실에 입장 할 때 반드시 손 소독제로 소독

특집_ 내한선교사 130주년 – 그 발자국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 〉〉 2면 **기획_** 왜 복음통일인가? 〉〉 4–5면 **문화_** 재미있는 선교지이야기 〉〉 8면

20150614-1053_2012528 -90216 15. 6. 12. 10:41 Page 2

올해는 내한선교사 130주년

[1. 기억 창고를 걷다
2. 그 발자국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 발자국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

CGNTV, 한국 넘어 전 세계에 '다큐 블랙마운틴' 전파

"CGNTV에서 만든 블랙마운틴이란 제목의 영상을 보았는데, 한국 선교 초창기부터 한국에 와서 귀하게 섬겼던, 그러면서도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선교사와 그 후손들의 삶과 사역을 추적하여 만든 영상인데 감동이었습니다. 그분이 야말로 진정 '종'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에서 (로이스) 린튼 선교사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삶으로 보여준 권면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되었고, 한국사람 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였던 자신들처럼 섬김의 삶을 살라는 호소였다고 생각합니다…"(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페이스북)

"내한 선교사 130주년 기념 다큐를 보면서 선교사의 진정한 사역은 무엇인지, 선교사의 가정에서 자녀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선대 선교사들의 사역이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와 계층 안에 녹아든 토착화 전략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며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귀한 영상을 상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CGNTV에게 감사드립니다."(여의도순복음교회 파송선교사 500여 명의 '블랙마운틴' 관람 후기)

'블랙마운틴-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에 대한 반응이 심상치 않다. 지난 130년간 내한한 선교사가 2,95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고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있게 했으며 영상을 통해 신앙의 첫사랑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기독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개교회, 선교기관 또는 공동체별로 블랙마운틴에 나오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사역했던 호남지역 선교지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온누리교회 양재이천선교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광주, 순천, 여수 등 남장로교 선교사역지 및 손양원목사순교기념관 등을 방문하고 선교 정신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임훈 양재이천선교 대표장로는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밟는 게 너무 좋았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선교 사역지를 방문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가을에도 국내 선교역사 기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요한 둘로스네트워크 대표는 "이 땅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대를 이어 북한까지 섬기는 모습에서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성을 깊이 생각하게 됐다"며 "'종' 의 영성으로 '더 멀리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CGNTV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온누리교회의 선교정신을 잘 읽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반응도 매우 뜨겁다.

"미국 선교사들의 애양원 사역 등을 보면서 현지인에 대한 사역 이양을 생각하게 됐고 이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됐어요", "고 휴 린튼 선교사의 동역자였던 안기창 목사님의 말, '선교는 결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해요. 가슴이 뜨거워야지 머리로 하면 안돼요. 또 선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 뛰어야 해요' 라는 가르침을 잊을 수 없군요."

한국교회 안에 '블랙마운틴' 상영 열기 또한 상당하다. 지난 5월 14일 둘로스네트워크(공동이사장 김원교·유기성 목사)가 창립포럼에서 처음 상영한 데 이어 5월말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세계선교대회에서, 중국 난징 한인크로스교회는 한인디아스포라집회에서 많은 기독인과 함께 감상했다. 6월 미국 산호세에서 열리는 남침례회 한인목회자 수련회에서 블랙마운틴 한국어 및 영어 버전이 상영될 예정이다. 6월 21일과 7월 초 교회 창립기념주일에 블랙마운틴을 각각 상영하는 곳도 있다. 동안교회(담임 김형준 목사), 산본양문교회(담임 정영교 목사), 이밖에 대전 늘사랑교회(담임 정승룡 목사), 성락교회(담임 지형은 목사),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 등도 교회 차원에서 블랙마운틴 영상을 활용할 계획이다. 감신대, 백석대는 물론 미국 트리니티신학교 등 국내외 기독대학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다. 국제선교단체인 INTERSERVE, WEC국제선교회, 미 남침례회(SBC)와 국제선교부(IMB)에도 영어버전이 전달돼 원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쉽게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온누리교회는 6~7월 각 공동체 종강예배에서 블랙마운틴을 상영하게 된다.

블랙마운틴선교사들과 후손들, 제작진.

CGNTV는 교회, 기관, 단체들이 국적을 초월해서 블랙마운틴을 볼 수 있도록 다국어 버전 제작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또 내한 선교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한국교회의 영성 회복을 위해 유튜브 채널 '내가 사랑한 조선' 을 오픈해 양질의 선교 콘텐츠 공유에도 앞장서고 있다. '내가…' 에는 단편 9편, 다큐 2편, 애니메이션 46편, 기획 14편, 뮤직 8곡 등이 수록돼있다. CGNTV는 오는 10월에는 후속 다큐를 선보일 계획이다. 선교신학, 한국교회사 등 관련 학회, 연구소 등과의 공동 학술 모임도 준비하려고 한다.

/ 함태경 CGNTV 경영기획본부장

✎ 칼럼 윤영각 장로 CCF(Christian CEO Forum) 회장

왜 블랙마운틴인가

CGNTV 다큐 '블랙마운틴-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에 나온 고 휴 린튼 선교사의 넷째 아들 앤드류 린튼과 친구 사이다. 그가 과거 홍콩의 한 투자은행에서 일할 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다. 2년 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 앤드류를 다시 만났는데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물었다. '블랙마운틴', 앤드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뉴욕에서 일하고 주말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지낸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과거 한국에서 사역했던 미 남장로교 선교사들과 그 후손들이 블랙마운틴에서 살고 있는지 몰랐다. 블랙마운틴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일상이 바쁘다보니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성탄절 온누리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다룬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다큐를 보다가 블랙마운틴이 다시 떠올랐다. 손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분이 마침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앤드류에게 이메일을 보내 블랙마운틴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웠다. 얼마 후 이재훈 목사님께 한국교회 초기에 신앙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CGNTV가 담아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이 목사님은 CGNTV에서도 그 아이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껴졌다. 앤드류에게 CGNTV와 함께 방문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아해하면서 주저했다. 나는 한국기독교역사의 일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고 선교사들이 매우 연로하시니 더 늦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겠다고 설득했다.

지난 1월 24일 CGNTV 제작진과 함께 블랙마운틴에 도착한 날, 앤드류 린튼과 그의 아내 하이디 린튼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자신들이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결코 영웅담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했다. 이어 린튼 부부가 걱정했던 부분을 털어놓았다. 과거 한국인들이 블랙마운틴을 몇 번 방문해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고 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책(선교사 자녀들이 기록한 자서전 등)과 관련사진 등을 내주었는데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고 결과물도 없었다는 것. 소문엔 자신들이 준 자료를 팔았다는 얘기까지 들려 마음이 상해있었다는 것. 린튼 부부는 우리를 신뢰하기에 인터뷰를 거절하는 분들까지 설득해 취재하도록 도와주었다.

블랙마운틴 제작과정에서 잊히지 않은 게 있다. 블랙마운틴을 방문하기 얼마 전이다. 과거 워싱턴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던 친구를 만났다. 그를 통해 워싱턴 한인감리교회에 10여 년 전 기록한 블랙마운틴 선교사 자료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블랙마운틴 취재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인터뷰 대상이 계속 늘어갔다. 제작진은 계획한 일정까지 연장해 블랙마운틴 외에 미 동부지역에 있는 내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다.

CCF가 나의 제안에 따라 블랙마운틴 제작비를 후원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도 블랙마운틴을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 땀과 눈물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일궈냈기 때문이다. 선교사 후손들이 한국을 넘어 북한까지 품고 사역을 이어가는 모습은 감격 그 자체다. CGNTV가 앞으로 미네소타 주, 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미국의 내한 선교사들뿐 아니라 유럽 출신 내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다큐로 만들면 좋겠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들 선교사에게 빚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갚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과정이 되기를 기도드린다.

20150614-1053_2012528 -90216 15. 6. 12. 10:41 Page 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생명, 사귐, 기쁨

요한일서 1:1~4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식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후 85년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는 가장 오래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증거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많은 권면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요일 5:13).

이것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 말씀에는 요한일서를 읽는 독자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매우 위험한 이단입니다. 확신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기에 기록된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4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3절).

요한일서를 기록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 둘째는 사귐, 셋째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기쁨입니다.

생명, 사귐, 기쁨(축복)은 논리적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공동체가 사귐을 갖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1~2절).

생명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떠올려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헬라의 철학 용어입니다. 헬라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는데 헬라 철학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만물을 지배하는 절대 이성입니다. 우주만물이 그냥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만물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절대 이성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은 헬라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상황적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하면 막연해 보이고,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시대적 세계관을 설명하는 용어를 사용해 하나님을 변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을 움직이는 로고스가 육신이 된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육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lesh'이고, 헬라어로는 '싹스'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썩어질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시대에는 이원론이 팽배했습니다. 몸은 무덤이다,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헬라 시대에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고, 파격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설명했는데 요한일서에서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생명이라는 단어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요한일서는 생명과 말씀을 연결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신비적 영역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이요,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도 요한은 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했을까요.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째, 당시 요한일서를 읽는 헬라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가 무엇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당시 요한일서를 읽는 독자들은 교회의 위기는 바로 그 시대의 철학으로 인해 복음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세대 사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누리고 살았던 시대가 지나고 주후 8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이차적으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그 시대의 철학사상에 동시에 물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변형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거짓교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교훈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복음도 받아들이고, 헬라 시대 철학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원적인 시각에 빠져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헬라시대 사람들은 메시야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육신을 입었던 것처럼 보였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요일 4:2).

4장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악한 영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영을 믿은 것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자는 거짓 영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가장 위험한 이단은 예수님이 진정한 사람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살아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단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예수님에 관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1세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역설적으로 설명해줍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증인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시오, 신성을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동일한 체험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요 20:31).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요한일서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2면에 계속〉

20150614-1053_2012528 -90216 15. 6. 12. 10:41 Page 4

독일의 통일 사례로

양운철 박사
(북한선교부, 세종연구소 부소장)

호국보훈의 달 기획 '왜 복음통일인가'

1. 통일한국은 '21세기 동방의 예루살렘'
2. 독일의 통일 사례로 비춰본 우리나라의 통일 준비
3. 북한 실정 이해하기
4.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와 크리스천의 자세

1989년에 무너진 베를린 장벽.

독일이 통일된 지 어느덧 24년이 흘렀다. 독일은 분단의 고통을 통일의 감격으로 발전시켰다. 통일 초기의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유럽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회고해 보면 독일 통일은 그 발단과 과정, 유럽통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재된 엄청난 대하 드라마였다.

베를린 장벽 붕괴 2년 전인 1987년의 여론조사에서 독일의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서독주민은 불과 3%에 불과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분 개혁과 개방의 바람은 동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동독 정부가 허용한 개혁적인 여행 자유화 실시는 동유럽 국가들의 개혁·개방과 맞물렸다. 동유럽에 여행 중이던 다수의 동독 주민들은 서독으로 탈출하게 되었다. 동독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당시 독일 통일의 주역이었던 기독교민주당 헬무트 콜 수상은 그의 자서전에서 고르바초프를 설득한 과정을 서술하면서 "나는 고르바초프의 심경이 변화되고 있음을 뚜렷이 감지할 수 있었다. 평화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단순히 하나의 어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요구였다"라고 했다.

당시 40만에 가까운 소련군이 동독에 주둔하고 있었고, 12만 미군이 서독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독일이 통일을 이뤄낸 것은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

독일 통일의 명(明)과 암(暗)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불과 1년 만에 독일이 통일되었다. 이 통일 과정에는 동서독 교회의 엄청난 기도와 동독 교회 지도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주요 도시의 교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가 없었다면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동독공산당 교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분단 45년 만에 이뤄진 독일의 통일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거대한 실험의 시작이었다.

통일과 함께 동독은 체제전환의 변화와 경제통합의 효과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다. 당시 독일 국민들에게 통일은 선택의 문제였다. 실제로 완전한 동서독 통합은 불과 몇 달 만에 달성되었다. 민족국가의 역사상 두 개 주권국가가 그렇게 평화적으로, 그렇게 급속하게 통일을 이룬 적은 없었다.

서독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제도에 기초한 통일을 얻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을 대가로 치렀다. 동독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정치적 자유를 얻었으나 일부의 경우 '이류시민' 이라는 열등감을 안게 되었다.

통일 후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되는 체제전환과정에서 동독은 사유화, 가격자유화, 새로운 서독의 법과 제도의 도입과 같은 사회전체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동독에는 막대한 자금이 서독으로부터 유입되었다. 서독의 노동조합의 지원으로 동독의 임금은 급속히 상승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동독 기업들이 대외경쟁력을 상실하고 도산했다.

통일초기 동독은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경험했지만 서독의 지원으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일례로 동독의 GDP 성장률은 1991년의 경우 -22.5%까지 하락하였다가 199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1994년에는 9.2%를 기록하였다. 급속하게 성장하던 동독의 경제는 1994년 이후 GDP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1997년부터는 서독의 성장률이 동독의 성장률을 앞서기 시작했다. 통일 초기에는 서독의 지원으로 상당한 특수가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동독 자체의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고, 동독에 대한 투자가 감소했다. 서독은 동독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했다. 약 2조 5천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동독에 지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엄청난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통일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독은 서독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다. 생산성도 마찬가지다. 동서독 간 경제적 수렴이 기대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많다. 동독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동서독 간의 경제격차는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했다. 다수의 동독인들이 서독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무시할 수 없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독일인은 통일 이후 사회현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독일 경제는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

통일의 경제적 부담

독일 통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독 정부는 막대한 이전지출을 통해 동독인구의 서독이주를 방지했다. 그리고 곧 이어 동서독의 소득을 수렴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였다.

통일비용이라는 용어는 통일이 달성되었을 때 동서독의 소득을 균등하게 하는 지출액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통일비용은 동독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나 산업구조

20150614-1053_2012528 -90216 15. 6. 12. 10:41 Page 5

비춰본 우리나라의 통일 준비

독일식 흡수통일, 한국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 소지
비용 최소화 관건 … 통일 충격 흡수하는 정책개발 우선

조정 등과 같은 미래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광의의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비용은 회계학에서 정의하는 단순한 비용의 개념을 넘어선 기회비용을 포함한 경제학적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통일비용을 기회비용으로 간주함에 따라 통일의 편익, 분단비용 등과 같은 파생적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통일비용이 실물적인 개념을 벗어나 유무형의 가치로까지 개념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개념의 확장으로 통일비용의 정확한 추산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정확한 추계는 없지만 독일정부는 현재까지 통일비용으로 약 €2조 이상의 재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에서의 통일비용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정부재정 이전을 의미한다. 초기의 긴급자금, 동독기업의 사유화 비용, 인프라 건설 등이 포함되지만 가장 큰 내역은 주로 실업보험 수당, 노후연금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수당과 관련된 지출이었다. 높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서독 정부가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동독에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치적 선택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서독의 이전지출이 주로 동독주민의 소비를 위한 용도로 배분되었다는 점이다.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이 소진형(dissipated) 지출이었다. 이같은 지출은 미래수익을 가져올 투자와는 다르다. 궁극적으로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일 후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1인당 생산성은 서독의 70% 수준에 계속 머물렀다. 증가하지 않았다. 동독지역의 낮은 생산성으로 통일 독일의 성장률은 하락했다. 자본의 잠식 현상도 발생하였다. 당시 독일에서는 통일이 재앙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유럽 통합으로 유로화가 통용되면서 독일은 자국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기반으로 환율의 조정 없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막대한 무역흑자로 통일에 소요된 재정적자를 보충하게 되었다.

동독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하르츠 개혁안을 근간으로 1차 연대협약(1995~2004)과 2차 연대협약(2004~2019)이 같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독일경제는 경쟁력을 회복하고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반도 통일 시점과 대비

현재 북한은 엄청난 독재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전 지역에 시장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생계가 시장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들의 의식도 급속히 변하고 있다. 북한체제에 대한 무관심, 탈북에 대한 욕망, 배금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북한도 곧 큰 변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외부적으로는 군사적 호전성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시장경제 요소가 상당히 뿌리내리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결국 북한체제는 개혁의 길로 접어들거나 대내외적인 모순으로 붕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에서 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통일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독일식 흡수통일의 개연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다른 체제의 성공적인 통합은 독일의 사례가 대표적이기 때문이다.

독일통일 사례를 한반도에 그대로 적응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아직도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립되어 있고, 북한에 독재정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초기조건은 미약한 현실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에 비교적 합리적인 개혁세력이 집권해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합의에 의한 단계별, 점진적 통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 시점은 확률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제약조건이 존재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시점을 너무 멀리 상정했기 때문에 통일비용에 대한 계획과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통일비용과 관련해 독일식 흡수통일을 전제하고 있어 우리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체제의 변화로 한국 주도의 통일이 달성된다면 한국 국민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통일을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에서의 최소 비용의 통일은 무엇인가? 이 대답은 '소진성 재정지원'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적 자생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북한경제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개혁에는 막대한 체제전환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일 후 어떻게 북한의 경제체제가 효율적으로 전환하느냐의 문제가 통일비용 절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체제이행을 경험한 대부분 국가에서 발전과 이행은 상충되는 개념이었고 현실이었다. 북한의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도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불러오게 된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은 독일의 경우처럼 생활수준 향상과 정치적 자유는 얻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협조 없이 순조로운 통일은 불가능하게 된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

한반도에서 독일식 흡수통일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켜 한국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소지가 높다.

통일에 대한 기대비용의 증가는 한국 국민의 전통적 통일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통일이 최고의 가치였던 인식은 점차 변하고 있다.

통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해 독일 통일은 한국 사람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통일 전 서독은 동독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원을 했고, 통일 후에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동독의 체제를 신속하게 자본주의로 전환시켰다. 독일 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서독의 경제력은 정부재정이나 거시경제지표 상으로 볼 때 최상의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에 대한 막대한 지원은 서독정부와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남기게 되어 정부부채와 조세부담의 증가 및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가져 왔다. 하나 긍정적인 사실은 동독의 화폐가 서독의 화폐에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임금 상승과 과도한 정부지출에도 불구하고 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서독의 막대한 재정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독이 동독의 변화를 위해 투입한 자본과 자원이 실제로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라는 사실은 독일식 지원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역설적인 교훈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서독의 이전지출은 주로 동독의 소비를 위한 용도로 배분되었다. 투자가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서독 정부는 상당한 양의 소진성 이전지출을 시행했다. 사회보장의 제공이라는 경제외적인 목적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통일비용의 실체는 통일한국이 기대하는 국토개발 차원의 투자가 다시 자본을 유인하여 창출하는 논리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 형제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수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통일비용을 추산하고 통일비용 부담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대부분의 통일비용 추정은 극히 단순한 확률적 실험일 뿐이지 신중하게 시도된 예측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함의도 낮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독일이 구상했던 소득 균등화는 통일한국에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통일정책의 목적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상적이고 실현 가능한 통일비용의 정책 목표는 북한이 자생적으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아울러 통일이 된 후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과 같은 유무형의 통일 편익에 대한 수량화 작업이 필요하다. 통일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를 배양해야 하는 정책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독일의 교회처럼 크리스천들의 지원도 필요하다.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그 희생은 우리에게 큰 편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통일이 된 이후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노력한 한국 국민들의 고귀한 형제애는 신뢰와 같은 큰 사회자본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0150614-1053_2012528 -90216 15. 6. 12. 10:41 Page 6

양지 온누리교회에는 특별한 예배가 있다

선교 지향, 세대별 특성과 눈높이 맞춘 주일예배

양지 온누리교회에 가면 특별한 예배가 있다. 세대별 특성과 눈높이에 맞춘 주일예배가 바로 그것이다. 선교를 지향하는 예배도 빼놓을 수 없다. 양지 온누리교회 차세대와 청년, 성인들은 매주일 자신에게 꼭 맞는 찬양과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있다. 그 은혜로운 현장에 다녀왔다.

▲ 가족주일 예배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기도를 하고 있다.

▲ 두드림예배.

양지 온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태어났다. 40년 역사를 지닌 벧엘교회에서 시작된 양지 온누리교회는 Acts29 비전빌리지와 함께 성장했다. 선교를 논하지 않고서는 양지 온누리교회를 설명할 수 없다. 그만큼 선교를 지향하고 강조하는 교회다. 두란노해외선교회와 Acts29 비전빌리지(훈련팀, 열방팀, 관리팀)가 곁에 있어 자연스럽게 선교를 익힐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답게 열방과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가 주를 이루는 시안예배 열기가 매우 뜨겁다. 앞으로 하용조 목사 기념관이 완공되면 열방과 선교를 향한 시안예배 열기는 더 뜨겁게 타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양화진과 100주년 기념관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하용조 목사 기념관과 양지 온누리교회, Acts29 비전빌리지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매월 셋째 주에는 안식년을 맞아 고국에 온 선교사들이 강사가 되어 '선교주일예배'를 드린다. 선교사들에게는 기도제목과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선교사들에게 직접 생생한 선교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선교사와 성도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장이다.

영성의 산실, 회복하는 예배처소

양지 온누리교회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지만 다양한 성도들이 모인다. 농업, 원예, 목축업 종사자, 회사원,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지역사회에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기에 안성맞춤이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성인 예배실로 들어오는 차세대들의 모습도 낯설지 않다. 양지 온누리교회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율동을 배우고, 찬양예배를 드린다. 자녀들이 부모와 주일학교 교사를 초대해 축복도 해준다.

차세대 주일에는 차세대만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 '가족주일'이라고도 한다. 가족주일은 1세대에 주신 믿음의 축복이 다음세대에도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키기 시작했다. 부모들에게는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차세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리는 기회다.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있다.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부모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4월부터는 '두드림(DO-DREAM)예배'가 시작됐다. 2080세대를 위한 예배다. 젊은이들을 위한 찬양과 말씀이 주를 이룬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예배다. '두드림(DO-DREAM)예배'는 하늘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리고, 꿈을 두드리는 예배라는 의미도 있다. 매주일 오후 2시에 예배드린다.

도육환 목사(양지 온누리교회 담당)는 "양지 온누리교회는 영성의 산실이요, 언제든 찾아와 회복하는 예배처소"라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쉼과 기도처소가 있는 양지 온누리교회에 방문해 축복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 목회칼럼 도육환 목사(양지 온누리교회 담당, TIM본부장)

한 지붕 다섯 가족

양지 온누리교회는 다섯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모여 동역하고 있다. Acts29비전빌리지에 위치해 있다. 일 년에 다섯 차례 이상 선교헌신자들을 훈련하는 선교훈련팀, 중보기도 담당 열방예배팀, 선교의 주력부대인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시설관리 및 대관을 담당하는 선교재단팀, 지역 캠퍼스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양지 온누리교회가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40년 전 벧엘교회로 시작된 한 지역교회가 1996년부터 온누리세계선교센터와 함께 했다. 온누리벧엘교회의 시간을 거쳐 3년 전 캠퍼스교회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한 지붕 다섯 가족은 다른 설립목적과 고유 사역이 있지만 하나의 비전을 붙들고 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역사를 오늘 우리 세대에서 이어가기 위한 선교공동체를 지향한다.

따라서 양지 온누리교회는 단순히 한 지역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역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 아웃리치와 중보기도 모임 뿐 아니라 매월 셋째 주일은 '선교주일'로 정해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기도제목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수요예배는 TIM이 주관해 '성령과 선교집회'로 드린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대한 간증과 선교 중심 메시지를 듣고 선교를 위해 집중 기도한다.

주중에 드리는 열방예배는 여러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고, 주일예배는 매 주 예외 없이 선교사님 가족들이 함께 드린다. TIM 본부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본부사역 중인 선교사님 몇 가정이 교회의 사역을 돕고, 순에 참여해 교제하기도 한다. 사역지 배경도 다양하다. 중국,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터키, 러시아, 몽골, 모로코, 영국…. 요한계시록 7장의 한 장면을 미리 맛보고 있다. 그리 크지 않은 작은 지역교회지만 인적 구성은 과히 세계적이다.

긴 겨울을 지내고 맞은 양지의 봄은 찬란함 그 자체다. 눈부신 꽃들과 새 생명력의 축제에 황홀해 있는 동안 어느새 짙푸른 여름을 맞이했다. 온누리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온 25년, 어느 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선교의 비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목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양지 온누리교회 사역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기에 족한 은혜의 나날들이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교회와 선교'라는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두 축을 겸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할 뿐이다.

내게 양지 온누리교회와 TIM은 복음사역의 양 날개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칠 수 없고, 소홀할 수 없는 소중한 주의 몸들이다. 원근 각처에서 멀다 않고 찾아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겨주시는 양지 온누리교회 귀한 성도들이 있어 힘이 된다.

신속한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헌신한 TIM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어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다. 양지를 더욱 찬란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 행복하다.

20150614-1053_2012528 -90216 15. 6. 12. 10:41 Page 7

대한민국 기독교 그 찬란한 역사를 만나다

숭고한 희생으로 꽃피운 공주 기독교 역사

선교사 가옥, 선교사 자녀들 묘, 공주제일교회를 가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를 달려 도착했다. 여기는 충남 공주다. 공주에도 선교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꽃피운 기독교 역사가 있다. 그 귀한 역사를 만났다.

먼저 마주한 곳은 선교사 가옥(공주시 중학동 9-1, 등록문화재 제233호)이다. 선교사 가옥을 찾기 위해 주소를 들고 마냥 걸었다. 적힌 주소대로 찾아 왔는데 웬일인지 선교사 가옥이 보이지 않았다. 계속 주위를 둘러보다 채소를 다듬고 있는 할머니께 선교사 가옥이 어디 있냐고 여쭸다. 주름진 손으로 아산을 가리키셨다. 산 중턱에 건물이 있는데 그곳이 선교사 가옥이라고 하셨다.

아스팔트길을 벗어나 산길을 오르자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 보였다. 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이 제법 고풍스러워보였다. 공주 시내도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이 건물은 공주 최초의 서양식 주거용 건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은 미국 감리회 소속 샤프(Robert Arthur Sharp)와 엘리스 하몬드(Alice J. Hammond) 선교사 부부의 사택이었다.

그들이 공주에 작은 초가집에서 터전을 마련하고 살았다고 한다. 엘리스 선교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여름 내내 우리는 돌 두 개 사이에 솥을 놓고 불을 지피는 작은 한국식 집에서 살았다. 그리고 우리의 침실은 너무나 지붕이 낮아서 일어설 때면 항상 머리를 부딪칠 걱정을 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샤프 선교사가 직접 설계했다. 그런데 집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엘리스 선교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이 집에 사용되는 모든 것은 즉석에서 만들어졌다. 심지어 벽돌도 직접 구했고, 나무도 우리의 감독 하에 마련되었다. 남편은 수 마일을 가서 나무를 구해왔고, 한번은 작은 말을 타고 급류를 건너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 했다. (중략) 우리는 유리를 잘라서 거의 모든 창에 끼웠고, 페인트칠, 기름칠, 광내기를 손수 했다." (Korea Mission Field 7월호)

샤프와 엘리스 하몬드 선교사는 손수 집을 짓고 본격적으로 공주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남학교인 명설학당과 여학교인 명선학당을 설립했다. 이 두 학교를 모태로 훗날 윌리엄스(Frank E. C. Williams) 선교사가 영명학교를 세웠다.

엘리스 선교사는 1913년 천안 지역으로 전도를 떠났다. 그곳에서 12살 소녀를 만났다. 엘리스 선교사는 크리스천이던 그 소녀의 부모에게 교육을 맡겠다고 했다. 그 소녀를 양녀 삼아 공주로 데려왔다. 그 소녀는 1919년 3.1만세운동에 동참하고, 3.5학생만세운동과 4월 1일 천안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이다.

공주 선교사 가옥이 바로 엘리스 선교사가 유관순을 데려와 같이 생활하던 곳이다. 엘리스 선교사는 1915년 유관순을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보내 민족의 등불로 키워냈다. 유관순 뿐만 아니라 40여 명의 선교사들이 이 사택을 거쳐 갔다고 한다. 현재 이 선교사 가옥은 개인 소유다.

▲ 샤프 선교사와 엘리스 선교사가 직접 건축한 선교사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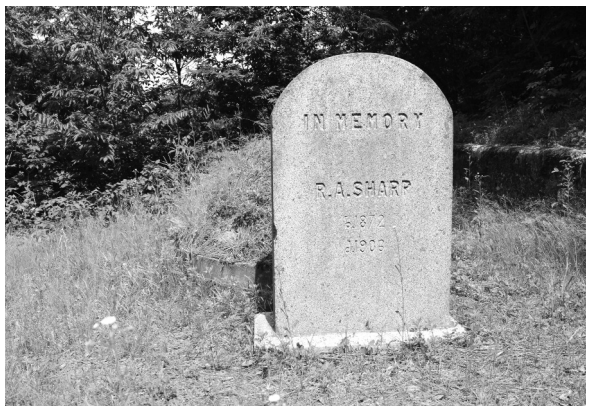
펴보지도 못하고 져버린 선교사 자녀들

선교사 가옥에서 산으로 난 길을 따라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다. 자그마한 5개 무덤과 묘비가 있다.

선교사 가옥을 지은 샤프 선교사의 묘지도 있다. 샤프 선교사는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 논산 은진으로 갔다가 이질에 걸려 손도 써보지 못하고 소천했다. 그의 나이 34세였다. 길을 가다 진눈깨비를 피해 들어간 집이 하필 상여를 보관하는 곳간이었다. 그곳에서 이질로 죽은 시체를 담았던 상여를 만졌다가 감염되었다.

테일러 선교사의 딸 에스터(Ester M. Tayior, 1911~1916), 윌리엄스 선교사의 아들 조지(George Z. Williams, 우광복, 1907~1994), 딸 올리브(Olive Williams, 1909~1919), 아멘트 선교사의 아들 로저(Roger Amendt, 1927~1929)의 무덤도 있다. 조지 윌리엄스(우광복)를 제외하면 모두 어린이들의 묘다. 무덤 주변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다. 척박한 선교지에서 피어보지도 못하고 져버린 아이들의 삶이 가여웠다. 그곳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조지 윌리엄스의 무덤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그의 한국 이름은 우광복이다. 영명학교 교장이었던 아버지 윌리엄스 선교사가 대한민국의 광복을 염원하며 지어준 이름이다. 그의 아버지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다. 우광복은 미해군 중령(군의관)으로 6.25에 참전하였다. 미군 중장의 통역관으로 한미동맹과 정부수립에 기여했다. 그는 87세에 사망했는데 공주에 있는 여동생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 선교사 묘지 중 샤프 선교사의 무덤.

살아 숨 쉬는 공주를 만나다

발걸음을 옮겨 공주제일교회(공주시 봉황동 10번지)로 향했다. 공주제일교회도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이다. 공주제일교회 구 건물은 '기독교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왼편에 있는 신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의료선교사 맥길(William B. McGill)은 이용주와 함께 1908년 7월 공주에 도착했다. 그들은 공주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마침내 공주읍교회(공주제일교회)를 세웠다. 그들은 초가집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을 키워갔다. 1930년 공주의 중심지에 예배당을 짓고 이전했다. 그런데 6.25 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1956년 재건했다.

공주제일교회 기독교박물관(화, 목 10~16시)에 가면 공주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1층은 '나눔의 순례길'이다. 6개의 기도방과 가상 선교사 체험을 할 수 있는 3D 모션 가상현실 공간이 마련돼 있다. 2층은 '복음의 역사길'이다. 사진과 유물 등 역사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벽면에는 한국 스테인드글라스의 개척자인 고 이남규 선생이 만든 초기 작품이 걸려 있다.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를 보는 것도 박물관 견학의 백미다.

이외에도 공주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송산리 고분군'과 '공주성', 백제 문화유산의 보고 '국립공주박물관', 1894년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최후의 전투를 벌였던 '우금치전적지', 갑신정변의 주인공 '김옥균 생가 터', 천주교 100년 박해의 현장 '황새바위성지' 등이 있다.

송산리고분군(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 5-1)은 꼭 방문해보기를 추천한다. 1971년 7월 5일 송산리 제5, 6호 고분의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굴된 웅진백제시대의 고분이다. 이것이 바로 무령왕릉이다. 지석이 이 무덤의 주인공이 무령왕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삼국시대 왕릉 중 신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다. 총 108종 4,6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백제문화 연구에 큰 공헌을 했다. 송산리고분군을 따라 걷는 오솔길도 참 좋다.

식도락여행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공주시는 '으뜸공주맛집'이라는 71개 음식점을 선정했다. 공주시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2년 이상, 동일한 메뉴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들이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제외됐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곳에서 공주의 맛과 멋을 만끽할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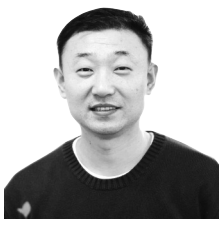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20150614-1053_2012528 -90216 15. 6. 12. 10:41 Page 8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스리랑카 사람들의 하루

홍차와 불교의 나라 '스리랑카'



윤용국 목사
(온누리M센터 스리랑카예배)

스리랑카 국기에는 칼을 든 사자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스리랑카 인구의 74%를 차지하는 '싱할리족'을 상징한다. 국기 귀퉁이에 있는 네 개의 보리수 잎은 불교국가라는 것을 나타낸다. 나는 2012년 스리랑카의 종교 중심지 캔디 지역에서 2개월 동안 머물면서 언어연수를 한 적이 있다. 그때 현지인 라자(엉클) 씨네 방 한 칸을 빌려 머물렀다. 그 집에는 라자(엉클)와 아내(안티), 두 딸, 아들(고등학생)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그 집에서 보낸 일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새벽 5시 30분이 되면 집안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 라자의 아내인 안티는 학교 선생님인 큰 딸과 영어학원에 다니는 둘째 딸, 아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느라 분주하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이다. 스리랑카는 날씨가 덥다보니 학교수업이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세 자녀들은 6시면 일어나 씻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부터 집안이 떠들썩하기 때문에 나도 일찍 일어났다. 내가 일어나면 안티는 스리랑카의 세계적 수출품인 실론티(홍차)를 한잔 가져다준다. 우유를 타서 준적도 있지만 대부분 설탕을 넣어 마신다. 그 집 작은 딸은 홍차에 설탕을 넣지 않고 차를 먼저 마시고 나서 설탕을 손에 쥐고 있다가 조금씩 먹었다. 이것은 과거 스리랑카 사람들이 홍차를 마시던 습관이라고 한다.

오전 11시가 되면 비스킷과 홍차를 또 가져다준다. 오후 4시경에도 차를 한잔 더 마시고, 저녁식사 후에도 마신다. 스리랑카에서는 매일 홍차 3~4잔을 마셨다. 스리랑카는 홍차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다. 역시 홍차의 나라다.

세 자녀가 집을 나설 때면 꼭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른손으로 부모님 발을 만지면서 인사를 했다. 이것은 존경의 표시다. 내가 스리랑카에 머문 2개월 동안 세 자녀들은 학교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렇게 인사를 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세 자녀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윤회를 믿는 나라 … 살생금지!

어느 날 하루는 거실에 뱀이 들어왔다. 나는 깜짝 놀라 "뱀이다"라고 외쳤는데 그 가족들은 전혀 놀라지 않은 눈치였다. 나는 뱀을 때려잡으려고 했다. 그러자 안티가 어디서 막대기를 하나를 가져오더니 천천히 뱀을 바깥쪽으로 쫓아냈다. 안티의 행동이 이상해서 물었더니 안티는 내게 "뱀도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말했다.

스리랑카는 불교사상 즉, 윤회를 믿는 나라다. 살생을 금지해서 곤충이나 작은 벌레도 죽이지 않는다. 뱀도 예외가 아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모기들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시간이 어찌나 정확한지 이 시간만 되면 사람들은 열어놨던 문과 창을 닫는다.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모기에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모른다. 모기 잡는 것이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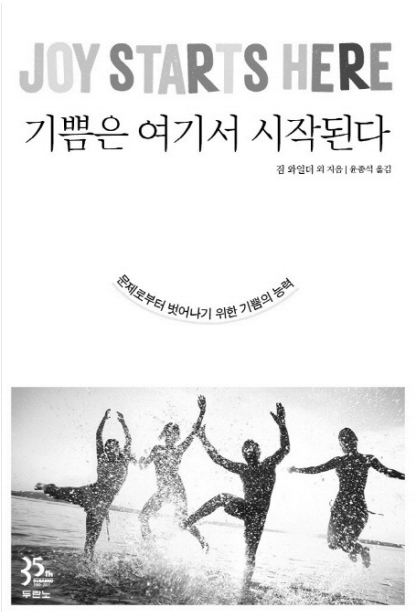
스리랑카에서 라자, 안티 가족과 함께.

스리랑카는 더운 날씨 탓에 천장과 벽을 띄어서 바람이 통하도록 집을 짓는다. 이 집도 그렇게 지었다. 그 덕에 문을 닫아도 천장과 벽 틈으로 모기들이 들어왔다. 안티의 가족들은 불교사상 때문에 모기를 죽이지 않았다. 벽에는 늘 게코(조그만 도마뱀)들이 붙어 있었다. 게코는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는 않고, 모기 등 다른 벌레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롭다. 사람도 모기를 안 잡는데 게코는 모기를 잡아먹으니 누가 집 주인인지 모르겠다.

이곳에서 보낸 2개월 동안의 시간은 현지어를 배울 뿐 아니라 평범한 스리랑카 현지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은 시간이었다.

✎ 칼럼 최용준 목사(여의도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와 기쁨 그리고 사랑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행복하기는 그리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인지 서점 진열대에서 행복에 관한 여러 책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책들은 대부분 행복은 개인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본다.

아들러 심리학을 다룬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에 나온 글귀가 내 마음 속에 들어왔었다.

"자네가 불행한 것은 자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다."

용기 없이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이다. 용기만 있다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아들러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행복한 것을 선택할 용기가 부족하다. 현실적인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포기한다. 아들러의 말처럼 행복을 위해 미움과 거절을 받을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도 역시 행복에 관한 책이다. 하지만 이 책은 개인의 마음먹기를 강조한 책들과는 다르다. 건강한 공동체의 관점에서 행복에 접근한다.

저자 짐 와일더는 "기쁨이란 관계적인 것이다. 나아가 기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증폭되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는 능동적 과정"이라고 말한다. 즉, 기쁨은 결코 혼자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쁨은 좋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 기쁨만이 참 기쁨임을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정의도 흥미롭다.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사람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다. 약한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건강한 공동체는 연약한 지체를 공감하고 존중한다. 또한 연약한 이에게 성숙한 관계 기술을 가르쳐주는 공동체이다. 관계 기술을 전수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은 놀이와 식사 등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초대교회가 참 기쁨을 전하는 공동체이였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행 2:46)."

현대인들이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건강한 교회와 가정은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참 기쁨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해인 수녀의 '어머니 편지' 시구가 생각난다.

"당신이 입으시던 옥색 모시 적삼처럼 깨끗하고 시원한 여름 편지에는 우리가 잠자는 새빨간 봉숭아 물 손톱에 들여 주던 당신의 사랑이 출렁인다…. 철 따라 아름다운 당신의 편지 속에 나는 늘 사랑받는 아이로 남아 어머니만이 읽을 수 있는 색동의 시들을 가슴에 개켜둔다."

자기를 희생하신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만날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또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의 어머니와 예수님 앞에서 정직히 내 연약함을 드러낼 때 거기에서 기쁨의 공동체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20150614-1053_2012528 -90216 15. 6. 12. 10:41 Page 9

2015 북한사역 서밋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소망의 땅 북한, 교회가 희망입니다

컴패션과 함께 '2015 북한사역 서밋' 행사 개최

온누리교회와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손잡고 '2015 북한사역 서밋' 행사를 개최했다.

북한사역 서밋은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더케이호텔서울(구 교육문화회관)에서 '소망의 땅 북한, 교회가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교회가 북한과 통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공감한 180개 교회와 20개 단체에서 1,100명이 참석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전임교역자 130명과 성도 50명이 참석했다.

북한사역 서밋에서는 '3 Firsts(First Frontier, First Generation, First Action)'를 주제로 3개 메인세션과 8개 분반세션, 피날레집회가 이어졌다. 3개의 메인세션과 피날레집회에서는 다양한 강연, 예배와 집회를 통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8개 분반세션에서는 북한의 미래와 교회의 역할, 독일통일의 교훈과 적용, 북한 어린이 전인적 양육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제와 패널들의 토의를 통해 북한사역의 방향과 교회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북한 어린이 양육을 위한 커리큘럼과 교사양성, 사역훈련 등의 내용도 다뤘다.

서정인 한국 컴패션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연합해 북한 어린이들을 섬기는 사역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기석 목사(서빙고 차세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들(북한 어린이)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면서 "통일 이후 북한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고민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전도폭발의 밤, 온누리 의사의 밤 행사 연기

메르스 여파 …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한 것"

'전도폭발의 밤'과 '온누리 의사의 밤' 행사가 연기되었다. 유행하고 있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여파다. 행사 주최 측은 "온누리교회에 메르스 확진자나 의심자, 직간접 접촉자는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사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6월 15일에 개최하기로 한 '전도폭발의 밤' 행사는 8월 24일(예정)로 연기되었고, 6월 20일 열릴 예정이던 '온누리 의사의 밤' 행사는 하반기(예정)로 연기되었다.

전도폭발의 밤 행사를 준비하던 송일섭 장로는 "부득이하게 행사를 연기한 것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밝히며 "더욱 풍성한 행사를 준비해 다시 초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일대일 배가코스 참가자 모집

(배우면서 가르치는)

6월 28일부터 5주 동안 서빙고 선교관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팀에서 '일대일 배가코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일대일 배가코스는 일대일 양육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이 인도하는 실습 중심의 일대일학교다. 6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5주 동안 매주일 오전 8시1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403호에서 열린다. 회비는 만 원. 참가신청은 I-School에서 하면 된다. 정원은 24명이다.

배우면서 가르치는 일대일 배가코스에서는 일대일 교재를 토대로 나눔과 실습을 병행한다. 일대일 교재 활용법과 교안 작성법 등 좋은 양육자로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힌다.

일대일 양육자반 과정을 수료했어도 동반자 양육에 자신이 없는 성도나 여러 해 동안 일대일 제자양육을 쉬고 성도들에게 제격이다. 다른 양육자의 일대일 양육비결이 알고 싶은 성도들에게도 안성맞춤이다. 일대일 배가코스 수강생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 일대일 동반자도 연결해 준다.

육동건 장로는 "동반자 유형에 따른 맞춤 일대일 제자양육 방법을 배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문의 : 김숙경 간사 02-3215-3220, 신갑섭 집사 010-6700-8848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인도네시아 CGNTV 운영 · 자문위원회 발족

자사 운영, 콘텐츠 기획 자문 및 기도 후원 역할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CGNTV와 한국선교사협의회, 한국목회자협의회, 기타 현지 크리스천들이 의기투합했다. 인도네시아 CGNTV는 지난 6월 5일(금)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CGNTV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CGNTV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 총괄본부장 김경훈 목사를 비롯해 행사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상재 지회장(CBMC자카르타지회)의 사회로, 이재정(운영위·자문위 (전)설립추진위원장) 목사가 개회기도, 장영수(한국목회자협의회 회장)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이호덕 장로(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자문위원장으로 김재룡(한선협 회장) 선교사를 위촉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와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목사는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신임 운영위원장 이호덕 장로는 "CGNTV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인도네시아 2억 5천만 인구가 CGNTV를 보게 되는 그날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장 김재룡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CGNTV를 통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생생하게 목도했다"며 "이곳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욱 협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운영위는 현지 크리스천 기업인 40여 명으로 조직됐고, 자문위는 목회자와 선교사 20여 명이 참여했다. 운영위는 인도네시아 지사 운영 자문 및 재정, 기도 후원을 담당하고, 자문위는 콘텐츠 기획 자문 및 사역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샤이닝 글로리 참가자 모집

7월 12~15일, 파주제자수양관

"3박4일 동안의 누림으로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됐어요."

"왕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온전히 누리고 돌아왔어요."

샤이닝 글로리(Shining Glory)에 참가한 성도들의 고백이다. 쉼과 회복을 위한 샤이닝 글로리에서 69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얻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69기 샤이닝 글로리는 7월 12일(주일)부터 15일(수)까지 3박4일 동안 파주제자수양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38만 원이다.

문의: 오기현 간사(02-3215-3726)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양재 만남의 잔치

날짜 : 2015년 6월 21일 / 장소 : 드림홀 / 시간 : 오후 3시30분
기간 : 5월 1일~5월 31일까지 등록한 성도

강남A	이혜수	나미정	강남D	과천의왕	조동석	산본안산	서초B	이성재	양재	유병화
김윤우	조경숙	노성옥	김승민	권옥련		윤정애	강희년	이지원	강대근	이규석
마요한	조영재	박현선	김지원	서요덕	분당A				김인선	이정보
이은숙	최자경	신동훈	김창연	서윤경	최인옥	서초A	서초C	송파	김일섭	정해성
	황정호	이근우	원세연	서은혜		정도현	임광훈	김홍기	김재엽	
강남B		이승희	이윤정	이미화	분당B	한지숙		이성무	김재홍	
노재호	강남C	임승주		임희규	강유라		서초D	이옥희	박선정	
심대근	고관식	황경숙		정인신	조성연		김상미		유경화	

양재 공동체 상반기 종강예배 일정

날 짜	공동체명	장 소	시 간
6/16(화)	송파 동창팀(사랑, 온유다락방)	JDS홀	19:30
6/19(금)	강남C	온유홀	20:00
6/21(주일)	푸른누리	온유홀	16:00

바로 잡습니다

5월 31일 신문 6면에 보도된 기사 중에 '좋은어머니스쿨'은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에서 처음 시작한 사역이 아니기에 바로 잡습니다.

20150614-1053_2012528 -90216 15. 6. 12. 10:41 Page 10

▪ 프리덤스쿨 수료 간증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 김은진 성도

프리덤스쿨에 오기 전까지 내 마음은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꽉 차 있었다. 나는 7년 전 이혼하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 이혼녀와 이혼 가정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에 맞서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승진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프리덤스쿨에 등록하게 되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프리덤스쿨 첫날 받은 카드에 적힌 말씀이다. 깜짝 놀랐다. 이 말씀은 고난주간 저녁기도 내내 강하게 들려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재작년 내적치유예배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나에게 주신 대언의 말씀이기도 했다. 이혼의 상처로 어둠 속으로 자꾸 도망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작은 희망이 되었다. 한편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깨닫고 눈물을 쏟았다. 이혼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 일적인 성취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지 못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1박2일 수련회를 통해서는 그동안 몰랐던 또 다른 문제를 알게 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 자주 아팠다. 죽을 고비를 세 번이나 넘겼다. 그래서 학교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나는 엄마에게 내 존재를 증명하려 했다. 그것이 지나친 착한 행동과 집착으로 이어졌다. 엄마는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을 자식인 나를 통해 대리만족 하려고 하셨다. 사회적 지위라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셨다.

어린 시절 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눈물 흘리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하나님은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 인내로 지켜주셨다. 통곡하면서 엄마와 이혼한 남편을 진정으로 용서했다. 그들에게 분노함으로 황폐한 사막 같은 삶을 살던 나의 죄를 회개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한 교만도 진정으로 회개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 43:18~19).

1박2일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나는 이제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을 바라며 날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것이다. 프리덤스쿨 회복 여정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할렐루야!

▪ 2015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 정상훈 형제(Pole2공동체)

올해 카운트다운을 홍보하기 위해 공동체별로 서포터즈를 구성해 활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카운트다운 서포터즈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순종했다. 그런데 감사함도 잠시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저 사람보다 카운트다운을 갈망하고 있나?"

"다른 공동체보다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나?"

이 질문은 나를 끝없이 괴롭혔다. 부끄럽게도 그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나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다 2년 전 카운트다운 집회를 떠올렸다. 잠실 실내체육관 맨 앞자리에 앉아 눈물 흘리며 뜨겁게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현장이 지금도 생생했다. 그 기억을 떠올려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왜 카운트다운 서포터즈로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이번 카운트다운을 통해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

지난달 21일 카운트다운을 준비하는 프리워십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의 질문이 생각났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믿음이라고 결론 내렸다. 담대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만 비전과 가정, 관계, 재정 등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다. 믿음의 결핍은 곧 기도의 부재로 이어졌다.

이제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카운트다운 서포터즈로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나는 어떤 공간과 시간 속에 있더라도 예배와 선교의 부흥을 위한 통로가 되고 싶다.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성령 충만해지고 싶다.

예배를 통해 수직적 사랑을 구하고, 선교를 통해 수평적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가정의 선교사, 친구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 목표를 향한 출발을 2015 카운트다운에서 하고 싶다. 2015 카운트다운에서는 분명 주님께서 요구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 온사랑합창단 가족 캠프를 다녀와서

내가 이렇게 귀한 사역에 쓰임 받다니…

/ 이예진 성도(온사랑합창단 교사)

작년 7월 나와 엄마는 황화자 권사님을 통해 온사랑합창단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한번 구경하러 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 온사랑합창단이 연습하는 모습을 구경하러 갔다. 그런데 문소현 총무님이 온사랑합창단 아이들에게 나를 새로 오신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 아닌가. 그 말에 나와 엄마는 빠질 구멍도 없이 온사랑합창단 교사가 되었다. 그 다음주부터 반을 나누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당시 나는 휴학생이긴 했지만, 졸업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인의 요청으로 다른 합창단에도 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바쁜 생활은 아니었지만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온사랑합창단은 큰 일로 다가왔다.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는 온사랑합창단원들의 평균 연령이 나보다 많아서 처음에는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단원들이 잘 따라올지, 또 내 말을 잘 이해할지 등 이런 저런 고민을 참 많이 했다. 생각 외로 잘 따라와 줬다. 노래 부르는 것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 합창 연습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단원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배웠다.

두 달 전 총무님으로부터 1박2일 음악캠프를 같이 다녀오자는 제안을 받았다. 나는 곧장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힘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었다. 곧장 대답한 것이 후회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주 한 시간 가르치는 것과 1박2일 동안 같이 지내는 것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 드디어 '온사랑 가족 음악캠프' 가는 날이 왔다. 주일예배를 드리고 버스를 타고 가평으로 출발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공기 좋은 곳에서 아이들과 어머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밥을 먹고, 수업하고, 예배드리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친 여러 음악이론들을 되새겨보았다. 여러 성악가 선생님들과 함께 노래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발음부터 시작해 음정을 잡고, 한 곡을 멋지게 합창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대견스러울 수가 없었다. 열심히 한 단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료증을 만들어 나눠주면서 격려했다. 열심히 음악수업을 마친 단원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자연 속으로 들어가 올챙이도 관찰하고, 다슬기도 잡아보고, 보물찾기도 했다. 넓은 자연 속에서 신나는 시간을 보내는 단원들과 가족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했다.

부족한 내가 이렇게 귀한 사역에 쓰임 받게 되어 기쁘다. 1박2일 동안 온사랑합창단 모두가 아무 탈 없이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하나원을 다녀와서

"정말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네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 이희진 성도

북한선교학교 과정 중에 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은 '하나원' 방문이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는 적응훈련센터다.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나는 북한선교학교 과정 중에 하나원 방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척 기뻤다.

하나원 방문 당일. 새벽 4시 30분에 눈이 번쩍 떠졌다. 정말 기대되고 설레었다. 화천까지 가는 차 안에서 차창 밖 멋진 풍경을 감상하면서 조금 있다 만나게 될 탈북민들을 상상했다.

드디어 하나원에 도착했다. 하나원에 들어가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나는 성령님께서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였다. 예배 시작 20분 전부터 탈북자분들이 예배실로 들어오셨다. 나는 그 중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다. 국정원에서 퇴소하고 하나원에 입소한 신입생이었다. 남한사람을 만난다는 설렘과 긴장감이 엿보였다. 그는 탈북하고 단동에서 2개월 거주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잘 찾아 폈다. 기도도 열심히 하셨다. 순간 '이 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는 궁금증이 일었다.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쉬웠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는 도움이 되고 싶어 그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줬다. 그런데도 그들의 근심어린 표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다. 교회 다니게 된 계기에 대해 나눌 때였다. 나의 회심 간증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대학생 때까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었다고 말했다. 내 간증을 듣던 탈북민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정말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나는 주저 없이 대답했다. "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청년들이 생각나 중보기도를 했다. 수많은 탈북자들은 다른 모습의 이산가족이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세대가 통일에 관심이 없고, 차라리 통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시점에 탈북자들의 유입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탈북민들이 통일 이후 북한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남한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한다.

20150614-1053_2012528 -90216 15. 6. 12. 10:41 Page 11

✎ **장로칼럼** 신무환 장로(온누리세계관학교)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탤런트 차인표가 에티오피아에 비전트립 당시 돌보던 아이들을 두고 오는 심경을 적은 시가 감동을 준 적이 있었다.

"배고픈 것이 좋으냐, 아픈 것이 좋으냐. 왜 웃느냐. 무엇이 행복하기에. 난 너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너는 나에게 사랑한다 말한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나는 따뜻한 물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너는 어둠과 모래와 갈증만 있는 사막에 남는구나. 너를 사랑한다면서 나는 너를 매일 매일 버리는구나."

이 글은 기독교 관련 책자나 신문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즐겨보는 대중잡지 〈여성중앙〉에 소개됐다. 이 글은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사방이 훤한 대낮에 무슨 빛이 필요하겠는가. 신선도를 유지하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필요할까?

한국 기독교가 점점 매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감추기 때문이다. 교회라는 온실 속에서 우리만의 언어와 문화를 기형적으로 키웠기 때문이다.

세상은 교회의 언어와 문화를 거부한다. 그래서인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만 안주하고 싶어 하는 유혹을 받기 쉽다. 그런데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 뿐 아니라 예술, 문화, 정치, 경제, 과학, 가정 등 모든 영역에서 마땅히 주인이 되셔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지혜와 권위의 샘물이 되어야 한다. 물질주의나 집단이기주의가 한국교회를 잠식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세상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세상은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가야만 하는 살아있는 전쟁터 같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의 사회참여라는 말은 사실 매우 어색한 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온누리세계관학교(Onnuri World view Academy, OWA)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세워나가는 사역이다. 2007년 설립되었다.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찾고, 그 영역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점(세계관)을 정립하도록 돕고 있다. 상반기에는 시사적인 이슈를 주제로 공개포럼을 하고, 후반기에는 세계관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지금까지 다룬 주제들도 무척 다양하다. 직장, 언론, 교육, 영화, 동성애, 창조론, 경영(재물), SNS, 정치, 법과 질서, 이슬람국가 등을 다뤘다. 특정 이슈를 다룬 책을 선택해 북클럽도 운영하고 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은 온누리세계관학교 설립을 보시고 "통일도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먼저 준비해야 하고, 인터넷도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끌고 나가야 한다. 세상에 뺏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온누리세계관학교는 사역이라기보다 모든 기독교인이 당연히 해야 할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 명하셨다.

✎ **권사칼럼** 이지연 권사(강남B공동체)

내게 찾아온 기적

히브리어로 '아가도스'는 영적인 보배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공간에서 32년 동안 자연치유를 돕는 전문 에스테틱션(피부미용 전문가)으로 살고 있다.

2012년 1월 16일. 12년 동안 한 달에 한번 봉사활동하고 있던 경기도 안산 엘림양로원을 찾아 가던 길에 11.5톤 트럭과 충돌하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전화번호를 묻는 경찰관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의식을 잃었다. 그렇게 일주일 간 무의식 상태로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척추 6개와 견갑골 2개가 골절 돼 가슴에 피가 고였다. X-ray 촬영도 할 수 없었다. 호스로 피를 뽑아내고 3개월 동안 병실에서 패혈증 위험과 싸우면서 똑바로 누워 있어야만 했다. 나는 30년 전 의료사고로 교감신경이 절단돼 왼쪽 뺨과 손에 땀이 나지 않고, 피곤하면 왼쪽 눈이 내려가는 증세가 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줄기세포를 맞고 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내게 통증 하나 없이 3개월 동안 휴식을 허락해 주셨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평소 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휴식을 주고 싶었으면 이런 방법을 썼겠냐며 눈물 흘렸다. 병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실감했다.

과거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속 그분만 생각하는 것도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다. 그 말씀대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난 내 차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살아있는 나를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내 차의 사분의 삼이 형체도 없이 구겨졌다. 운전석만 약간 공간이 비워져 있었다. 보험사에서는 1센티만 더 압축되었어도 즉사할 수 있었던 끔찍한 교통사고라고 했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천사봉사단 소속으로 장애인재단 임마누엘과 신아원, 소망재활원에서 봉사활동 하던 중에도 기적을 경험했다. 유방암 수술로 올라가지 않는 팔을 부둥켜 안고 울고 계시는 어르신의 팔을 붙잡고 기도하자 팔이 올라갔다.

또 엘림양로원에서 신장투석으로 온 몸이 아프다던 어르신이 내가 해주는 관리를 받고 따뜻한 물속에 잠겨 있는 느낌이라며 포근히 주무셨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한 번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명확히 보여 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이는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해 가는 우리가 힘 있는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맹세하심에 있어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히 6:17~18).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게 큰 위안과 소망을 주셨다. 모세는 말씀을 듣는데 40년 걸렸고, 바울은 말씀을 들음으로 사도가 되었다. 빛이 없어도 빛이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오늘이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 드린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 **신앙에세이** 허원희 목사(사회선교 다문화사역)

지구공동체를 보호하자

지난달 온누리교회는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자는 러빙유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 실시 후 나는 길을 걷다 깜짝 놀랐다. 우연히 본 버스 옆면에 붙은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며 누군가 이 지구를 아끼고 있다"는 광고 문구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광고를 게재한 줄 알았는데 어느 화장품 회사의 캠페인이었다. 한 줄짜리 짧은 글이었지만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다. 특히 지구를 아낀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다들 환경 캠페인을 인간 중심적으로 실시하기 마련인데 지구 중심적인 마음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인간은 모든 자연이 창조된 이후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에 의존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자연만물이 인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구가 각종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도 사람들은 '이러다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잘 사는 것이 먼저고 환경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다.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 신부는 "인간은 지구 시스템의 하부 시스템이다. 지구 시스템이 온전해야 인간이란 하부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최우선으로 간주해야 하는 공동체는 인간 공동체가 아닌 지구공동체다"라고 말했다. 지구가 오염되면 경제고 뭐고 끝장이란 소리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크리스천들은 배타적 이기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진리를 소유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구심력을 갖고 모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비진리로 인식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세상과 분리되면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선민사상에 빠져 독선적으로 살다가 예수님마저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에서 제외되는 그런 실수 말이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소중할수록 더욱 주변과 대화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은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5일 동안 창조하시고, 복 주신 자연만물을 돌보지 않고 마음대로 남용하면 어떻게 될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이 축복의 말씀을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자연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기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땅을 다스리라' 는 말을 '땅을 비옥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 로 이해했다. 왕이 정복한 땅을 황폐화시키면 왕의 자격이 박탈될 만큼 땅과 자연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자연을 정복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마구 약탈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자연을 다스리되 주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인간에게 자연만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구를 다스릴 주인으로 임명받았다면 지구를 아끼기 위해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조그만 불편쯤은 감수해야 한다. 캠페인을 벌여놓고 정작 식사 때는 일회용 숟가락, 포크, 종이접시를 내놓은 어느 부서 같이 하지 말고, 정말 지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성스러운 지구 공동체를 아끼기 위해 조금 더 불편하고 발전된 행동들을 계획해야 한다.

20150614-1053_2012528 -90216 15. 6. 12. 10:41 Page 12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생명, 사귐, 기쁨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갈릴리 호숫가를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예수님 육신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같은 체험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체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살아계신 생명이신 그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방식은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기질마다 만나는 모습이 다를지라도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는 체험을 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경험했던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시대에도, 이후 세대에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만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이 동일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객관적 진리에 근거한 체험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살아 존재하기에 한국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중국에서나, 러시아에서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이식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3절).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죄 용서를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 가르침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죽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우리가 가진 최고의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도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영원한 생명을 다시 공급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 받아야 합니다. 장기이식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식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수술대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이식됩니다.

빼앗아 갈수 없는 기쁨

3절에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제가 현재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계속된 현재입니다.

여러분, 사귐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만남을 사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귐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만남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대화가 깊어져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 사귐이 계속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 결과가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4절).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의 지속적인 사귐에는 반드시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요 15:11).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요 16:22).

"주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빌 4:4).

이 기쁨은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입니다. 때로 환난을 당할지라도 육신의 죽음 앞에 직면할지라도 빼앗아 갈수 없는 기쁨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넘치면 반드시 사도 요한처럼 전파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더 깊이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그 사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Talk Talk 열왕기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열왕기 ⑬ : 엘리사와 어린아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여자와 아이들이 자주 등장한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녀의 아들,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와 두 아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 그녀의 아들. 여기서 여인들은 비록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단지 'OO 여인'으로 언급되지만 주연격인 엘리야나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일조하는 조연급 인물이다. 반면 아이들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왕하 5장)에서는 다르다.

나아만은 고대 근동의 강대국인 아람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군대 사령관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나병이 있었다. 나아만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그 계기는 다름 아닌 나아만의 부인을 시중들었던 어린 여종이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아 온 아이었다. '크고 존귀한 자'였던 나아만을 엘리사에게로 이끈 사람이 '아주 하찮은 작은 아이'였다. 이 어린 여종이 "그(엘리사)가 나병을 고치리이다!"라고 얼마나 확신에 차서 말했던지 나아만은 아이가 말한 것을 믿고 왕을 찾아가 허락을 받는다.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읽어보면 웃긴다. 성경을 근거로 필자가 좀 각색해 봤다.

"임금님, 제가 이스라엘에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왜?"

"저희집에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여종이 하나 있는데, 사마리아에 신통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 좀 받게요."

"그래? 물론 가야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주겠네."

코미디 아닌가? 강대국의 두 슈퍼파워인 왕과 군대 사령관이 기껏해야 포로로 잡아 온 어린 여종의 말을 믿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간다. 자칫 전쟁을 하자는 뜻으로 비칠 수도 있는 일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대화에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했음을 봐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들을 어리석게 만든 것은 아닐까?

흥미롭게도 나중에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일곱 차례 몸을 씻고 깨끗해졌을 때 성경은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다고 말한다(5:14). 여기서 어린아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아라'는 앞서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찾아가도록 권했던 어린 여자아이와 같은 히브리어다. 나아만이 어린 여종의 말을 믿고 따랐을 때,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뜻한다. 어린 여종이 나아만을 직접 고친 것은 아니다. 그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확신하고 엘리사를 소개해준 것뿐이다. 확신을 가지고 말이다! 하나님은 어린 여종도 사용하신다.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이다.

반면 어린 여종과 달리 힘깨나 있다는 어른들은 믿음이 없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들고서는 자기 옷을 찢으며 분노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며 씩씩댈 뿐이었다. 어린 여종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으며, 그가 틀림없이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한 나라의 왕은 자기 나라에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음을 생각하지도 못했다.

어린 여자아이의 놀라운 믿음은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온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갔을 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음을 믿었던 사람은 '로데'라는 어린 여종 단 한 사람이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었을 성도들은 로데가 전해준 베드로의 생환 소식에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뻐 외치지 않았다. 오히려 "네가 미쳤다"며 로데의 말을 불신했다. 당시에 아이는 온전한 인격체로 취급받지 못했다. 아이의 말과 행동은 유치한 것으로 여겨졌다. 더군다나 남자도 아닌 여자아이였으며(당시에 여자는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졌다), 신분이 비천한 하녀였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린 여종 '로데'만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사 베드로를 살려주셨던 것이다.

어린 아이의 순수한 믿음 때문에 나타난 또 다른 이적이 오병이어 사건이다. 한 아이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것에 대해 안드레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요 6:9)라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5,000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 주님의 이적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2에서 이렇게 찬양한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신앙세계에서도 진리인 듯 싶다.

20150614-1053_2012528 -90216 15. 6. 12. 10:41 Page 13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 가정사역	
김현주	김남순
김환주	연진숙
■ 강서	
김원경	박 순
문경진	서선교
서혜원	이옥분
송미화	김유정
육금남	황의숙
이윤희	유연경
이춘자	곽순란
정선미	박선화
홍상기	김태응
■ 강촌	
김미소	최영혜
송화정	서영애
윤화영	강경희
한정수	박미룡
■ 고양은평	
김성겸	최상민
김정훈	김승동
박종훈	김승동
안미훈	차금숙
이규영	양재경
주종석	김경하
■ 관악금천	
이경문	장영미
이정숙	임미숙
정경순	박옥분
최경옥	이미옥
■ 광명	
권영중	이영식
박은실	정복림
■ 김포	
김미라	서정화
유호성	박수웅
이지혜	이명숙
■ 노원	
박설애	고정희
손인화	박현옥
이근수	김진서
정연옥	성정은
황인영	김헌수
■ 동대문중랑	
문유선	김진애
서경일	이민희
안영자	김성옥
오정록	임동구
윤미희	이금하
이용자	노정자
조정환	성정대
■ 동작	
나민실	전의경
유경자	이순금
한영임	우인숙
■ 마포	
김기범	이석철
오향란	남명희
유복준	남기희
이순섭	송시욱
장현희	이종미
■ 북누리	
이현화	김계숙
■ 서대문	
이상신	강은철
■ 서빙고	
김숙경	이승대
백광순	권영석
신미혜	송혜경
정명순	김희권
한경애	이승대
■ 성동광진	
강미라	백소영
김동조	서정택
김현희	김태연
김호식	성지중
박은정	이미학
오진우	김성수
임선주	강현숙
임영종	조영재
조윤주	이숙희
최장섭	조승종
홍애경	민숙자
■ 성북	
권오용	임진배
김정은	황승리
김태진	김복한
방경남	김종익
윤용석	김복한
윤종구	강태성
■ 신용산	
강지인	이현리
김광수	오명석
김주현	라팔모
유혜민	김경남
최윤아	권영자
■ 양천	
강정희	김용삼
김은정	최백춘
노재승	김용삼
박경아	김효순
육희정	김수진
이민철	윤영호
■ 여의도	
이소진	김혜례
■ 영등포구로	
김광직	이병국
김진아	조성숙
성미경	이정숙
안지현	민승기
이광열	조용남
이은주	김태희
최선미	이술연
■ 용산	
김병수	최종하
시진국	김우호
임계순	박은주
전영미	최혜영
■ 이촌	
강선미	김경신
김판주	박상흥
오우상	강찬옥
윤명자	김인기
이영훈	김동연
이예훈	김유진
이진희	황영규
황광옥	김주연
■ 일본어예배	
김경란	김인기
김지영	정영희
박은미	김복녀
■ 일산	
강정호	박호준
민성원	이영민
송은영	송현주
신동주	정구현
이시은	조용숙
이지선	이승진
정민지	이지현
■ 중국어예배	
JINBOLUN	김창무
■ 중종로	
김현호	김영한
손재현	우은애
정영명	심희정
조주상	최미란
최미나	강 현
최현주	심희정
한영복	김예수
■ 찬양사역공동체	
김경현	김은경
김서현	유재은
윤세운	윤영미
황보승	원용연
■ 한강	
김영호	이경호
남정호	배기석
■ 특별한초대	
김봉자	김승희
김옥기	최현선
김진주	신순목
김형주	장창근
박현지	김진희
손기해	남영우
이수진	김필승
정다미	김민애
정미영	양은진
■ 기타	
강노화	박미정
권순진	염현덕
김소현	이종연
김유지	이명은
김종환	최석주
김진현	이혜은
박현주	방충애
손연성	이도미
신소희	성지은
안설희	임현주
유윤경	명찬희
윤주헌	기재우
장재민	권녹희
최기선	조묘순
최옥주	송영애
■ OCC	
이승은	문경숙
■ S브릿지	
강수연	김명리
강혜진	정세화
권주연	조은숙
김민석	이병국
김성곤	강종도
김옥주	함유민
김은주	장경옥
김지혜	권녹희
김희정	이경희
류은정	김수영
박상선	김수경
배윤정	송용재
배지현	임원교
이선혜	이환경
이용아	박미숙
이은정	임원교
장하다	이창환
정운중	조승국
최현숙	김은주
하성호	예민수
홍소피아	김명희
황은혜	송은선
양 재	
■ 강남A	
김미란	이지원
서미혜	구명진
신동한	권혁은
오태정	조옥환
윤웅철	김형주
이옥자	김영수
정미영	전수연
홍지희	윤미한
■ 강남B	
강복덕	박연신
구희연	이민정
김영옥	최문숙
박순용	안명상
성열화	하현선
원영선	이경애
정경남	이정구
조경숙	양원경
■ 강남C	
김미정	이이성
김인하	송주영
김정애	한지영
신영미	임희경
신영식	유정상
윤수진	한경희
윤애경	이영란
이정민	홍성희
이혜경	이해숙
임승주	홍혜옥
정문선	김순옥
정미정	전의경
최지연	김정애
하성희	노민정
■ 강남D	
김규한	박진우
손진아	김수영
안태민	김홍구
양순예	오미령
이호영	권애화
■ 과천의왕	
송대희	이응구
장수재	이현숙
■ 분당A	
맹한철	김대형
■ 분당B	
구명옥	이주영
김선희	정경혜
김연지	김현미
김영지	이규종
김지수	조복희
김창환	강민구
민병훈	이장우
박남진	조복희
박완재	김효구
성방주	장은숙
이 명	김은희
이소영B	홍은경
이정연	이진혜
임기종	권혁기
임정훈	김용호
전수희	이지영
홍석원	이광조
■ 서초A	
구영수	임명원
김승기	임윤묵
김은정	장정복
박원숙	이경숙
이선희	박귀남
이오훈	윤석일
■ 서초B	
강형진	이범석
양은실	양평순
오명진	양점숙
이광식	최명식
장복순	최미혜
■ 서초C	
김향숙	이상희
윤남경	강현주
윤문자	오동순
윤문정	강소연
윤연경	정희숙
이재운	최창수
장 욱	황순규
■ 서초D	
계기정	주영희
김진형	이남형
양준호	이상욱
오성심	정중경
오지연	이한성
이동원	배장원
임혜미	최윤경
정영석	김호중
최준환	박창국
추민아	최보비
탁우영	신동은
■ 송파	
강 선	박은혜
고현전	문갑숙
김진경	김현순
박신영	단예라
손지숙	박선희
정경운	원지묵
황소영	정호선
■ 안양평촌	
장해주	김종수
■ 양재	
김수정	표희정
박종예	문희영
박종희	이흥중
안권준	정동영
안정호	전병진
이미경	백윤옥
이승재	변성찬
정혜손	노명화
조준오	최준원
조태희	조동재
천수연	조용대
■ 푸른누리	
김홍석	강승구
민병권	장정열
신지은	우주연
■ 특별한초대	
전영근	김성호
■ Bridge33+	
권오향	양상용
김호영	전승찬
김효주	이부영
류제경	이강신
박경아	이인희
박선영	신지영
변성우	위성계
오건우	김원석
임재민	김미옥
장동석	이준희
장신화	이밝음
차연로	이지혜
채수진	이세화
최문한	이승복
최미경	최정란
황경희	임선화
■ Harmony	
김정국	박상무
■ Point5	
박지영	김미용
장윤지	이준언
정현영	김숙자
대청	
■ 갈렙	
고정국	이영욱
손혜정	강명순
조현능	김규석
■ 여호수아	
강기흥	정제범
강동국	조옥배
강은경	강미옥
강정하	이지원
강필준	신흥태
권미례	이조이
권수정	황주윤
김나영	진옥경
김보미	강영희
김성수	정재환
김성휘	박민서
김성희	김영수
김승연	홍성혜
김안나	기수정
김용미	양희주
김유림	박흥순
김은경	이계숙
김은선	서은미
김의중	변성찬
노정이	이현숙
문승주	고종환
문우주	김 준
박민선	노수영
박민지	김연숙
박수민	문규례
백종건	최형규
성한영	최순호
엄예경	박희란
오유경	차향숙
윤화영	김환영
이국화	오소희
이나경	백기현
이명랑	송주영
이보미	이영희
이상기	김수훈
이세연	유미애
이유나	정윤덕
이의환	박진구
이지영	박현숙
이태훈	이백권
임혜진	신영숙
장미진	권오미
장유정	류필분
정슬기	김동춘
정진태	김동훈
조수아	이정희
조에스더	이춘자
차은정	김영주
천주아	이정원
하헌정	이병태
한수인	이다영
홍은경	홍성혜
■ 요셉	
김민희	이세란
김성태	배준학
김효신	조혜연
박예은	김경숙
박창완	김창만
심은이	이윤경
양용희	김민정
유래화	이홍재
장지연	박은주
조재영	장영주
조현정	조민정
■ 허브	
노은지	김완선
이동휘	이명진
■ CH630	
한화수	전구영
■ Gil	
김미영	지승빈
노보화	임미진
박예슬	이혜진
이승한	김창현
이유정	정옥순
■ J4U	
남기준	우성식
신지운	지상목
오현석	김기영
이상규	정연진
이태호	김대수
임향기	나용선
정지범	지상목
조남섭	강호형
■ Pole2	
김민관	박기홍
박정선	이은희
백승범	황성룡
오세연	박선영
■ SNS	
김영실	변영애
김현경	유혜리
김희준	금세종
명귀옥	김영숙
문혜련	정성희
박수환	서재원
박은경	전승현
박현규	박성기
이지예	정소은
전혜정	조은미
조동성	정희선
최임영	조해영
황지수	이용출
■ W	
김원기	최정현
김지은	양순임
김혜경	전채주
박귀철	한상규
박상욱	이수빈
박지희	이홍선
서병철	정민욱
이영은	성창섭
이예리	배영숙
지상현	정창수
한진희	조성숙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 김재욱 장로반	
박창우	
박태준	
■ 김철진 목사반	
하한수	
■ 김형철 목사반	
김종렬	
■ 이해영 목사반	
김성희	
■ 여성민 목사반	
최석태	
■ 임항재 목사반	
오승인	
■ 이준호 목사반	
권정혜	
■ 최상근 장로반	
김성일	
김윤선	
방수미	
배은화	
손은형	
심규정	
양미숙	
최일섭	
황동일	
황진현	
양재	
■ 김성원 목사반	
김해종	
박 형	
이경희	
정우근	
진만리	
■ 김현실 목사반	
배홍민	
■ 양성민 목사반	
김소영	
김신주	
배성국	
윤선영	
이시진	
이현아	
정대전	
최은희	
한민정	
구명순	
성낙원	
■ 이동훈 목사반	
권혜경	
김성민	
김안드레	
박계수	
이상희	
이영문	
임지현	
진필녀	
오숙녀	
이유정	
■ 이진숙 권사반	
김동민	
김은희	
노창우	
박상희	
박세이	
박영실	
박온유	
변지영	
이신범	
이정현	
정지연	
조영찬	
지은채	
■ 전재표 목사반	
권준택	
김미정	
김의숙	
소상호	
송 진	
유병선	
유성호	
이 근	
이은숙	
이황재	
임헌진	
최경애	
허 식	
■ 정재욱 목사반	
최명재	
장주환	

수료예배: 6월 21일(주일) 2부 예배

: 수료대상자 오전 8:30분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수료대상자-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양재 수료대상자-양재 사랑홀)

수료예배대상자: 4월 6일~ 6월 7일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 간증 김진아 자매

"놓치면 안 된다, 믿고 구하라, 평안이 승리다"

지난해 5월, 30년 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왔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걱정과 부담감이 앞섰다. 선교를 비전삼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역 내에서도 모범이 되는 고향교회를 떠나는 우리 부부의 신앙을 붙잡아줄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이 큰 숙제였다. 방송으로만 보던 서울지역 교회들을 모두 가보고 싶었지만 거리나 교통문제가 제약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많은 훈련 프로그램을 받았고, 오랜 기간 교회에서 봉사했다. 그런 내가 다시 새신자가 되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약간 당혹스럽기도 했다.

물론 교회에 처음 등록한 새신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지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나에게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내 생각이 근거 없는 자만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시작됨과 동시에 서울생활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시술을 받았다. 업무 스트레스와 잦은 몸살로 서울에 오기 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응급실에 네 번이나 실려 갔다. 몸이 힘들어지면서 마음도 힘들어졌다. 임신시도도 두 번 모두 실패했다. 미열이 몇 달간 지속되어 여러 대학병원에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원인도 알 수 없었다.

나의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했다. 말씀을 외우고 공부해야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피폐해져 기쁘게 공부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됐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육체의 고통과 심적 고통에서 강퍅해져 가는 나를 붙잡아주었다.

"놓치면 안 된다!" 양육자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권면이었다.

양육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오만을 회개했다.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생활도 반성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계속 되는 미열의 원인을 몰라 답답했다. 마음이 계속 불안했다. 초조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았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는 동안에도 의심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양육자님은 내게 "믿고 구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평안이 승리"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때부터 평안해지려고 노력했다.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된다는 깨달음도 얻었다. 예수님의 원동력은 기도였다. 아무리 급한 일이 닥쳐도 예수님은 기도를 먼저 하셨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시작한 일대일 제자양육은 내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귀한 시간이었다. 남편도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해 배운 내용을 서로 나눴다. 믿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이 하나님의 섭리를 입술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대일 제자양육이 끝나가는 것이 아쉬웠다.

우리는 아직 목마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아기사들이다. 더 열심히 훈련받아 주님께 값없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아직까지도 나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어디계시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을 것이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한다.